

다가온 공개기구 총선거와 단과대 학생회 선거

오는 11월 27일과 28일 선거 동시진행, 총학생회 선거 2010년 선거 이후 처음으로 경선

지난 11월 13일 오후 6시 공개기구 총선거 후보자 등록이 마감됐다. 이번 공개기구 선거에는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학생복지위원회 ▲졸업준비위원회에 후보가 출마했다. 야간총학생회에는 후보가 출마하지 않아 내년 3월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총학생회는 경선이다. 기호1번 '라디오' 선거운동본부의 박미성(행정 4) 정학생회장 후보, 배성진(역사문화 2) 부학생회장 후보와 기호2번 '행동' 선거운동본부의 이종혁(정통 3) 정학생회장 후보, 유지혜(영어영문 2) 부학생회장 후보가 출마했다.

총학생회의 경선은 지난 2010년 제26대 총학생회 보궐선거 이후로 처음이다.

총대의원회는 'MADE' 선거운동본부의 원정호(산공 3) 정회장 후보, 김민지(매디 3) 부회장 후보가 출마해 단선이다.

학생 복지 위원회는 기호 1번 'Vitamin' 선거운동본부의 정주용(지정 3) 정위원장 후보, 서인영(경영 2) 부위원장 후보와 기호2번 '한울' 선거운동

기호1번 '라디오'



▲ 박미성(행정 4) 총학생회장 후보

▲ 배성진(역사문화 2) 부학생회장 후보

기호2번 '행동'



▲ 이종혁(정통 3) 총학생회장 후보

▲ 유지혜(영어영문 2) 부학생회장 후보

부의 이영철(산공 3) 정위원장 후보, 정두화(영어영문 2) 부위원장 후보가 출마해 경선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졸업준비위원회는 단선으로 'S-O-S' 선거운동본부의 김경민(역사문화 3) 정위원장 후보와 박수빈(경영 2) 부위원장 후보가 출마했다.

공개기구의 정책 토론회는 11월 20일 수요일 오후 4시 탐구관 지하101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단과대 학생회는 인문대·사과대·예

술대·공과대 중 사과대를 제외하고 모두 후보등록을 마쳤다.

인문대와 예술대는 단선으로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인문대는 'Soul' 선거운동본부의 이민석(영어영문 3) 정학생회장 후보와 권한결(영어영문 3) 부학생회장 후보가 출마했다. 예술대는 김백현(의과 3) 정학생회장 후보와 박다원(인테리어 3) 부학생회장 후보가 출마했다.

공과대는 기호1번 'O,' 선거운동

부의 양남철(정시 3) 정학생회장 후보, 이정은(정통 2) 부학생회장 후보와 기호2번 'LUV' 선거운동본부의 권구홍(산공 2) 정학생회장 후보, 장민주(산공 2) 부학생회장 후보가 출마했다.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회과학대 학생회 선거는 내년 3월 보궐선거로 치러질 예정이다. 사회과학대는 지난해에도 보궐선거로 학생회가 구성되었다.

이번 선거에는 야간총학생회와 사

회과학대를 제외한 모든 공개기구와 단과대에서 출마를 선언했다. 특히 경선으로 출마한 총학생회는 높은 투표율이 기대되는 바이다. 단선이었던 지난해 29대 총학생회는 53%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한성대 신문사는 각 후보들의 협조로 그들의 선거공약과 포부를 취재했다. (기획 8면에 계속)

한재원 기자 1236047@hansung.ac.kr

지식재산권 특강 열릴 예정

오는 19일과 21일 본교 학생관 102호에서 한국발명진흥회 후원으로 지식재산권 특강이 열린다. 특강의 주제는 '취업하고자하는 기업, 창업하고자 하는 회사가 필요한 발명을 해서 나만의 지식재산권으로 만드는 법'이다.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최근 지식재산권은 중요해졌다. 자신 스스로 지식 재산권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지적 재산권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한다.

이번 특강은 많은 학생들이 지식재산권 확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운 것임을 알기 쉽게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특강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순선(산학협력단) 과장은 "지난해 글로벌벤처창업강의에서 특강된 바 있다. 지난번에 반응이 좋아 다시 한번 기획하게 되었다. 일반학생들도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9일은 기초반이며 21일은 활용반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성공지에서 찾을 수 있다.



▲ 지난 16일 미래관 DLC에서 '제26회 한성대학교방송공 방송제'가 개최됐다. 시상상은 최우수상 1개, 우수상 2개로 이루어졌다. 최우수상 작품은 '꾸꾸까까'팀의 '나 잡아봐라'였다. 수상의 영예를 안은 '꾸꾸까까'팀은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로 쟁쟁한 대학생들을 제치고 우승했다.

현정은 기자 hje6757@hansung.ac.kr

본교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KOICA 사업 10억 수주

한성대 이름으로 해외에서 국가사업 펼칠 예정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에서 주최한 'KOICA 종료프로젝트 사후관리사업'이 사후관리사업에서 본교가 2개 분야에 선정되어 각각 5억씩 약 10억을 수주 받는다.

KOICA는 관리하는 중점관리국(26개국)에 기업과 협력을 통해 중점관리국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했다. 본교가 KOICA로부터 10억을 수주한 사후관리사업은 위사업의 연장선으로 종료된 사업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전국 대학교를 대상으로 총 23건 사안에 41개 과제가 제출됐고, 그중 13건이 최종 선정되었다. 본교는 총 3과제를 제출하여 '몽골 정부의 통합데이터센터 구축사업의 사후관리'와 '콜롬비아 국립도서관 역사자료 디지털화·보존 역량강화사업의 사후관리' 두 과제가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그렇다면 이 사후관리사업이 본교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지대할까? 이에 최민이(기획협력팀) 차장은 "이

미 노동부, 지식경제부 등 많은 국가기관과 협력하는 프로젝트가 많다. 단순히 10억을 수주 받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보단, 한성대의 이름으로 해외에서 국가사업을 하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이는 본교가 세계로 뻗어 나가는 의미가 얼마나 큰 것인지 시사했다.

사후관리사업은 학생들도 해외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의미가 크다. 정확히 정해진 사람은 아

니지만, 현재 몽골의 사업은 지식정보학부, 콜롬비아의 사업은 공과대의 IT 계열 학과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최민이 차장은 좀 더 많은 학생들을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KOICA 종료프로젝트 사후관리사업은 1년 단위로 구성되어 진행되는 것이다. 이번 수주를 받은 것은 빠르면 올해 12월, 늦으면 내년 1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최민이 차장은 "우리학교에서 총 3건에 과제를 제출했는데, 탈락된 '아제르바이잔 정부의 지적제도 개선 사업'은 좋은 평을 받았지만 선정되지 못했다"며 "1년 후 사업의 연장선에 대한 아직까지는 공고된 것이 없지만, 만약 연장 혹은 추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면 앞으로 한성대는 다른 사업에서도 두각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신동석 기자 1236067@hansung.ac.kr

- 2 취재 기획 2013 한성을 빛낸 학생들
- 3 수요일마다 계속되는 외침, 그 현장을 취재하다
- 6 철학으로 바라보는 준비
- 7 표절이 아니라 오미자다
- 8 2014년 공개기구 및 단과대 후보 공약 한눈에 보기

정보

제482호 2면에 실린	학기중
서블러스 관련 기사에 첨부된 운행표 중 시간이 잘못 표기된 것이 있어 정보보도합니다. 학교→삼선교 구간 오전운행시간은 8:30~10:30분입니다. 서블러스를 이용하실 때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전 : 08:30 ~ 10:30(3대 수시운행) 점심 : 12:00 ~ 13:00(1대 수시운행) 저녁 : 17:00 ~ 19:00(2대 수시운행)

학생회소식

학생회 총선거 11/27 ~ 11/28

사령	
면	정시경 부편집국장 (경영 2)
면	손민호 수습기자(정통 1)

서울의 CENTER, 상상력 인류에게~
한성대학교
HANSUNG UNIVERSITY

나를 깨다

더 빛나는 내일 더 가치 있는 인생을 비단다면, 당신의 가슴속에만 갇혀있던 반짝이는 꿈을 세상 밖으로 꺼내야 할 때입니다. 가슴속 한평은 아직 청춘인 당신. 그 열정 식지 않도록 한성대 대학원이 함께 하겠습니다.

2014 학년도 전기 한성대학교 대학원 신입생·편입생 모집

1. 일반대학원(주간)

박사과정 (02) 760-4271

- 한국어문학과/국어학, 국문학, 한국어교육, 문화콘텐츠
- 영어영문학과/영문학, 영어학
- 사학과/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 문학정보학과/문학정보학
- 경영학과/인사, 조직관리, 재무관리, 서비스운영관리, 마케팅, 회계학, 경영정보
- 행정학과/행정학, 정책학
- 무역학과/국제무역실무, 국제경제학, 국제경영학
- 경제, 부동산학과/경제학, 부동산경제학, 부동산학
- 산업경영공학과/모델링&시뮬레이션, 경영공학, 생산-품질경영, 안전 및 인간공학
- 정보컴퓨터공학과/멀티미디어공학, 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 정보시스템공학
- 기계시스템공학과/산업위생공학
- 미디어디자인학과/시각·영상커뮤니케이션, 애니메이션·제품디자인, 인테리어·디자인이론
-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매니지먼트컨설팅, 컨버전스컨설팅

석사과정 (02) 760-4271

- 한국어문학과/한국어문학, 문화콘텐츠, 한국어교육
- 사학과/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 영어문학과/영어학, 영미문화콘텐츠, 영어교육
- 문학정보학과/문학정보학, 기록관리학
- 무역학과/국제경제, 국제경영, 국제무역실무
- 경영학과/인사, 조직관리, 재무관리, 서비스운영관리, 마케팅, 회계학, 경영정보
- 행정학과/행정학, 정책학
- 경제학과/경제학, 부동산경제학
- 산업경영공학과/산업경영공학
- 멀티미디어공학과/멀티미디어공학
- 컴퓨터공학과/컴퓨터공학
- 정보통신공학과/정보통신공학

2. 특수대학원(야간)

경영대학원(석사) (02) 760-5844

- 경영학과/경영관리
- 호텔관광외식경영학과/호텔경영, 관광경영, 외식경영
- 스마트서비스학과/스마트서비스학
- 신용카드학과/신용카드학(신설) (02) 760-8038, 8070

행정대학원(석사) (02) 760-5845

- 행정학과/행정학, 정책학
-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 노인복지, 실버산업, 사회복지상담
- 경찰행정학과/경찰행정학
- 미안알콜학과/미안알콜학 수사, 중독상담

예술대학원(석사)

- 패션디자인학과/패션디자인, 패션마케팅, 패션정보로봇 (02) 760-4097
- 뷰티예술학과/분장예술, 헤어디자인, 뷰티에스테틱, 뷰티소재학 (02) 760-5740, 5970

국방과학대학원(석사) (02) 760-4318

- 안보전략학과/국방안보, 국방정책, 군사전략
- 국방경영학과/국방경영
- 국방 M&S학과/국방 M&S학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석사) (02) 760-5897

-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매니지먼트컨설팅, 컨버전스컨설팅

부동산대학원(석사) (02) 760-5876

- 부동산투자금융전공, 부동산평가전공, 부동산개발 및 관리전공, 지적 및 토지관리전공

교육대학원(석사) (02) 760-5878

- 교육행정&리더십전공, 상담심리전공, 유아교육전공, 국어교육전공, 영어교육전공

원서접수 및 발표

- 원서접수기간 : 2013. 11. 18(월) 10:00 ~ 11. 25(월) 17:00
- 접수방법 : 대학원홈페이지(http://gs.hansung.ac.kr) 모집요강 확인후, 유웨이(이메일) (http://www.uwayapply.com) 인터넷 접수
- 면접전형 : 2013. 11. 30(토) 10:00 ~ (학과별 변동가능)
- 합격발표 : 2013. 12. 13(금) 14:00 이후 대학원홈페이지(http://gs.hansung.ac.kr)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각 대학원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 경영대학원 신용카드학과 신설

- 서울권 대학 유일한 학과
- 다양한 장학 혜택

한성대학교 대학원

136-792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http://gs.hansung.ac.kr

소수인원 선발하는 관세사, 본교 홍재상 학생 당당히 합격



지난 9월 25일 우리학교 홍재상(무역 3) 학생이 제30회 관세사 2차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관세사는 물건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수출입절차를 대신 밟아주고 문제가 생겼을 때 대리하여 해결하며 관세법상의 행정 소송을 수행한다. 또한 수출입 물품에 대해 물품분류 기호에 따라 분류하고 이에 대한 세율을 부과한다. 1년에 75명의 소수인원을 선발해 수요는 많은 반면 공급이 적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희망하는 직업이다. 또한 PTA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해 관세사의 수요가 더 늘어났다.

홍재상 학생은 1년 10개월이라는 시간동안 관세사를 준비했다. 홍재상 학생은 "2011

년 6월에 전역했다. 전역하기 전 미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 전역을 하고 무역학과와 관련된 최고의 자격증이 관세사라는 생각이 들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관세사 준비를 하게 된 계기를 말했다.

홍재상 학생은 관세사를 준비하는 동안 학교에서 운영하는 고시반을 이용했다. 고시반은 고시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열람실과 지원금 30만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는 "복학하고 난 후 미래관 열람실에서 공부했다. 그 후 일 년 동안 학교 근처 고시원에서 생활하며 고시반에서 공부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고시반에서 지원해주는 지원비 30만원이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무역학과와 권오 교수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다. 시험 공부하는 동안 주신 조언이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홍재상 학생은 "모든 한성대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성대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을 틀 안에 가두고 한계를 너무 낮게 둔다. 한계를 두지 않았으면 한다. 그것을 깨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홍재상 학생은 남은 학기동안 관세사를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하며 연락해달라고 전했다. (cleangogo@naver.com으로 연락하면 된다)

DB 메쉬업 공모전 우수상 수상



▲ 앱 '두발이' 실행 시뮬레이션의 모습

지난 10월 16일 '2013 데이터베이스(DB) 메쉬업 공모전'에서 정민재(산공 3), 안지현(산공 3), 남현규(산공 3) 학생으로 구성된 'INNOVATOR'팀이 '두발이'로 기획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대회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한 국가공모전으로 정부 3.0을 계기로 공공-민간데이터가 개방되고, 경쟁력 있는 DB 메쉬업 사례를 발굴·보급하기 위해 개최됐다.

DB공모전은 국내에 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새롭게 창조해내는 대회로 ▲기획 ▲개발 ▲공모전 공개용 DB ▲API 제공사 DB제공 총 4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총 223종의 작품이 출품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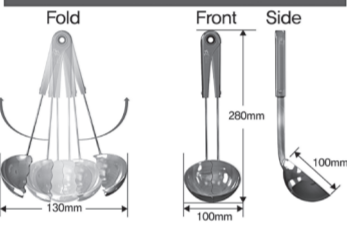
우수상을 수상한 '두발이'는 2륜차(자전거, 오토바이 등)에 적용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네비게이션, 음성처리, 소셜네트워크(SNS)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두발이는 여행, 출퇴근 시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새롭게 정비해 서비스 등의 방법 및 위치를 알 수 있고, SNS서비스를 이용한 여행 팁·정보공유 등을 할 수 있다.

INNOVATOR팀은 3학년이 되면서 취업에 관해 고민하며, 학교 공부에서 나아가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공모전에 참가했다고 말했다.

수상작 준비 과정에 대해 그들은 "두발이를 만들기 위해서 어플의 상업성, 2륜차의 보급현황, 효율성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조사하고 대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준비한 것보다 큰 상을 받은 것 같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이를 계기로 자신감 상승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도전정신이 많이 향상됐다. 다른 학우들도 공모전에 참가하여 상을 받았다면 좋겠다"고 전했다.

실생활의 불편함에서 아이디어를 찾았다 'Cutting & scoop'

지난 10월 28일 한국철강협회 스테인리스스틸클럽이 주최한 '제1회 스테인리스 주방용품/가구 대학생 디자인 공모전'에서 우리학교의 김광식(제품 4) 학생과 이하형(제품 1) 학생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 'Cutting & scoop'의 작품 모습

이하형 학생은 "공모전에는 많이 경험해보고 경력을 쌓고 싶어 참가하게 됐다. 공모전에 처음 참가해 모두 서툴고 할 줄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며 "하지만 광식오빠가 많은 도움을 주었다. 판넬 구성부터 레이아웃 작업 및 3D 프로그램 사용 등 많은 부분을 가르쳐 주었다"고 말했다.

김광식, 이하형 학생이 수상한 작품은 우리가 주방에서 사용하는 국자를 실용적으로 디자인한 'Cutting & scoop'이다. 이하형 학생은 "아이디어는 주로 실생활에서 찾았다. 기존에 나왔던 제품 중에 불편한 점을 찾아 디자인으로 착안했다"고 설명했다. 이 작품은 국자, 집게, 가위를 합친 주방용품이다. 면 요리를 그릇에 담을 때 면이 잘 찢어지지 않거나 냄비에 도로 빠질 때 국물이 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디자인 되었다. 국자가 반으로 벌어져 집게 기능을 하면서 중간에 면을 자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하형 학생은 "방학 내내 공모전 준비를 했다. 작품이 준비한 만큼 나온 것 같다. 공모전 첫 작품이라 기대도 안했는데 수상을 해 뿌듯했다. 같이 팀을 이룬 광식오빠에게 가장 고맙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이하형 학생과 김광식 학생에게는 상금과 공동 주최사인 백조썬크에서 인턴십의 기회가 주어진다.

2013년 한성을 빛낸 학생들 한자리에



▲ 총장공로상을 수상한 학생들의 모습

2013년은 그 어느 해보다 본교 학생들의 대외활동이 뚜렷하고 좋은 성과도 이뤄졌다. 그리하여 지난 10월 10일 총장실에서 세계대회, 전국대회, 관세사 합격 등 한성을 빛낸 학생들 20명이 초청하여 '총장공로상' 시상식이 진행됐다.

강신일 총장은 "젊음은 도전하기에 멋있다. 현재에 안주하고 멈춘다면 퇴보할 뿐"이라며 "지금 당장 육체적으로 힘들더라도 후에 정신적인 승리를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공로상 시상식은 11월 말에 또 한 차례 있을 예정이며 향후 계속 이어질 것이다. 복지·공부 환경등 학교 측에서 실시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3 한성대 '총장공로상' 수상자

대회	수상 내역	수상자
레드닷어워드	Best of the best상	정희영·소병현·유재건·임주형·이호민 학생
	Winner상	심용우 학생
세계ACA경진대회	4등	김다혜 학생
대한민국 대학생 광고경진대회	대상	'군단의 심장' 팀
전국 대학생 앱개발 챌린지대회	최우수상	Late But Lucky팀
	대상	장동욱 학생
대한민국 실내건축대전	장려상	한승용 학생
	금상	김지혜·김영하 학생
수림문화예술 대학생 아이디어공모전	최우수상	이민주·임혜진 학생
아이클레보 UCC 공모전	최우수상	홍재상 학생
관세사 합격		홍재상 학생

취재부 press@hansung.ac.kr

제25회 대한민국 실내건축대전 대상 '여유공간(餘裕空間)'

제25회 대한민국 실내건축대전(이하 실내건축대전)에서 본교 재학생이 대상과 장려상 및 입선 등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실내건축대전은 한국실내건축가협회와 KCC가 주최하는 대회로 인테리어 공모전 중 가장 권위 있는 큰 대회이다.

대상작은 장동욱(인테 4) 학생의 '여유공간'으로 옥상의 상막한 공간과 건물과 건물사이의 빈 공간을 활용한 작품이다. 장동욱 학생은 성수동을 건다 '도심의 희색빛과 숲의 푸른빛이 너무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을 보고, 건물과 건물사이 빈 공간을 활용하고 싶었다'고 하였다. 장동욱 학생은 "한국을 넘어 해외에 이름을 떨칠 수 있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한승용(인테 4) 학생은 'CRACK OF CITY WALL(이하 성곽의 틈)'이라는 작품으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성곽의 틈'은 외부로 성곽처럼 꾸민 전망대로 서울의 아름다운 전경을 볼 수 있도록 구상되었다.

한승용 학생은 "궁 외각을 걷다가 문득 '성벽사에서 밖을 내다본다면 어떻게?'라는 생각을 하다가 디자인이 떠올랐다. 실용화된다면 외국인들에게 기억이 남는 한국의 명소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작품에 대한 애착을 보였다.

두 학생은 "교수님들의 끊임 없는 지도와 지도교수(권혁진), 주변 지인들의 격려 및 응원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또한 김리태·김미소·김정동·김치오·백인에·윤예영·이외솔·정소영·정지슬·진유경(인테 4) 학생들도 같은 대회에서 입상하였다.

이에 김미지(인테리어학과) 학과장은 "본교 학생들이 이와 같은 큰 대회에서 대상과 장려상 및 입선 등을 받아 뿌듯하다"며 "타대학교의 학생들은 팀을 구성하여 하나의 작품을 출품 하지만, 본교 학생들은 1인 1작을 출품하기 때문에 이번 수상이 더욱 더 뜻 깊다"고 한다. 이어 그는 "우열을 가리기 힘든 대회에 훌륭한 다수의 작품들을 출품한 입상을 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도 더욱 더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싶다"고 전했다.



▲ 대한민국 실내건축대전에서 출전한 학생들의 모습



▲ 대상을 수상한 여유공간 작품

독립채산제 특수대학원 운영성과 평가 결과 공지

2012학년도와 2011학년도 2개 년도의

독립채산제 특수대학원 운영성과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2012학년도 (2013년도에 평가)		2011학년도 (2012년도에 평가)	
1위	경영대학원	1위	부동산대학원
2위	부동산대학원	2위	국방과학대학원
3위	국방과학대학원	공동 3위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4위	예술대학원-패션디자인기획학과	공동 3위	경영대학원
5위	행정대학원-행정학과,사회복지학과,경찰행정학과	5위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융합기술학과
6위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융합기술학과	6위	행정대학원-행정학과,사회복지학과,경찰행정학과
7위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7위	예술대학원-뷰티예술학과
8위	교육대학원	8위	교육대학원
9위	예술대학원-뷰티예술학과	9위	예술대학원-패션디자인기획학과
10위	행정대학원-미약알콜학과	10위	행정대학원-중독재활학과



비가 오던 수요일 오후의 외침

일본대사관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사연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렇다 하면 혹시 '수요집회'도 알고 있는가? 위안부 문제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일본정부에 대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공식사죄와 법적배상을 요구하는 집회이다. 수요집회는 매주 수요일마다 12시 정각에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열린다.

1992년 1월 8일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단일 주제로 개최된 집회로는 세계최장기간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다. 그만큼 오랜기간 동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니 마음 한 켠이 씁쓸해지는 기록이기도 하다.

집회 장소에 도착하니 수요집회의 상징인 나비 피켓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보였다. 일본대사관 앞을 마주보고 있는 소녀상도 보였다. 12시가 되자 집회의 주인공인 위안부 피해 할머니 두 분이 소녀상 옆에 마련된 자리에 앉았다. 두 분 모두 답답한 표정이었다. 안부를 묻는 사람들에게 활짝 웃음을 보이시며 답사도 나누었다.



▲ 송의영과 김지수 학생이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람들은 할머니 두 분을 중심으로 모였다. 홀로 일본 대사관을 응시하던 소녀상도 순식간에 사람들의 돌림노릇이 되었다. 마치 소녀상에게 든든한 동지들이 생긴 것 같았다.

사회자의 진행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약한 빗줄기였지만 쉽게 그치지 않을 것 같았다. 사람들은 저마다 신문을 쓰거나 피켓으로 머리를 가렸다. 갑작스러운 비에도 아무도 집회를 빠져나가진 않았다. 비록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집회이지만 마음만은 같은 것 같았다. 할머니들끼리는 여고생들이 분홍색 우산을 씌워줬다. 고생의 흔적이 옷이 느껴지는 할머니들의 얼굴도 여고생의 분홍 우산 밑에서만큼은 누구보다 평온해보였다.

뒤늦게 초등학생들도 집회에 참가했다. 선생님의 지도하에 단례로 참가한 것 같았다. 아이들은 모두 머리에 나비모양 핀을 꽂고 있었다. 몇몇은 손수 만들어진 피켓을 들고 있기도 했다. 어린이 하지만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하는 마음은 어느 어른들과 다를 바가 있을까. 시민들의 자유발언 시간 중 송의영과 김지수 학생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다. 소녀는 두 할머니를 향해 말했다. "할머니들이 그동안 겪으신 고통과 역경을 다 이해할 수 없어 너무 죄송합니다"라고. 그녀는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더 많아보였으나 울음이 터져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수요집회에는 일본인 참가자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개인자격으로 참가한 일본인부터 시작해 일본 기독교 단체, 노동자 단체도 눈에 띄었다. 다소 의외였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으므로, 일본 국민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기자의 예상을 뒤엎고, 그들은 다른 참가자들처럼 진지한 표정으로 수요집회의 시작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그 중 기독교 단체는 자유발언에 참가하기도 했다. 단체의 대표는 "일본국민으로써 위

안부 피해 할머니들께 죄스럽고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일본 정부가 진정으로 세계 평화를 바라다면 더 이상 역사의 사실 앞에 눈을 감아선 안됩니다. 할머니들의 증언에 귀를 열고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고 발표했다. 그들은 발표문 낭독을 마친 후 일본인 65인이 서명한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서명지를 할머니들께 건넸다.

초청가수의 잔잔한 노래가 비오는 거리에 울려 퍼졌다. 사회자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급진적인 이유로 일본에게 배상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앞에 계신 두 할머니는 일본에게 배상금을 받게 된다면,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전쟁 피해자들에게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주셨습니다"라고.

그렇다면 할머니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일본정부가 더 이상 위안부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잘못에 대한 시인과 진심어린 사과를 하는 것이다. 오후 1시, 사회자의 진행을 끝으로 제 1099차 수요집회는 막을 내렸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 등록 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37명 중 56명의 할머니만이



▲ 일본대사관 건너편에 위치한 소녀상이다.

생존해 계시다. 171명의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의 사죄를 받지 못한 채 타계한 것이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아직까지도 위안부 문제에 대해 침묵과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다. 집회가 끝난 후, 모두가 돌아가고 소녀상은 또다시 홀로 남겨졌다. 소녀상의 뒤에는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다.

김근영 기자 kc2120@hansung.ac.kr



▲ 사회자가 진행을 하고 있다.

지구촌 이슈

필리핀, 태풍 '하이엔'으로 피해 발생

지난 8일 슈퍼태풍 하이엔(Haiyan)이 필리핀 중부지역에 상륙했다. 필리핀에 상륙한 제 30호 태풍 하이엔은 순간 최대 풍속이 시속 275km로 관측됐다. 필리핀 방재위원회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오후 6시 공식성명을 통해 "하이엔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2357명, 부상자는 3853명, 실종자는 77명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재해로 필리핀 전국 80개주 가운데 43개주에서 187만 가구가 피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해 867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태풍 하이엔으로 인해 파괴된 가옥은 13만 채에 이르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최대 1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공개됐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타클로반 지역에서는 필리핀 당국이 전력과 통신망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은 필리핀의 피해복구를 위한 상급과 구호물자 등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루마니아에서 바다벌레로 인공혈액 개발

지난 11일(현지시간) 유로뉴스는 루마니아 과학자들이 바다벌레에서 추출한 물질로 인공혈액을 개발했다고 보도했다.

인공혈액에는 다모류 환형동물과 같은 바다벌레에서 추출한 복합단백질의 헤메스트린(Hemerythrin)이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도 물과 소금, 그리고 스트레스 물질을 방어하기 위한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이 들어있다. 또한 헤모글로빈을 포함하지 않아 붉은 빛이 돌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화학자들은 "쥐에게 실험한 결과 인공혈액에 대한 거부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 동물실험이 끝나면 1~2년 내로 임상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루마니아의 바베스-볼리아이 대학 화학자들은 "인공혈액이 영구적으로 혈액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인공혈액을 수혈 받은 후 인체가 다시 혈액 생성을 하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연구진은 냉장고에 저장할 필요가 없는 인스턴트분말 형태의 인공혈액 개발도 진행할 예정이다.

하와이, 미국 50개주 중 15번째로 동성결혼 허용

지난 12일(현지시간) 하와이주 상원이 하와이 주민과 하와이를 찾는 미국인들에 대한 동성결혼을 허용한다는 법안을 찬성 19표와 반대 4표로 가결했다고 AP 통신은 보도했다.

앞서 지난 8일 하와이주 하원이 이 법안에 대해 찬성 30표와 반대 19표로 처리한 바 있다. 닐 애버크롬비 하와이 주지사는 13일(현지시간) 하와이컨벤션센터에서 이 법안에 서명했으며 법안은 다음 달 2일 발효될 예정이다. 다음 달 법안이 발효될 경우 하와이는 미국 50개주 가운데 15번째로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주가 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성명을 내고 "하와이주 의회가 결혼 평등권을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환영 한다"고 뜻을 전했다. 한편 하와이대학교는 "법안이 발효될 경우 미국의 다른 주에 거주하는 동성애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결혼식을 올리거나 신혼여행을 즐기러 하와이를 방문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으로 하와이주가 앞으로 3년간 2억1천700만 달러(약 2천330억원)의 경제 효과를 거둘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그때 그 사건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 무죄로 풀려날 수 있고 돈이 없으면 유죄가 된다는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라는 말은 원래 감옥 안에서 떠돌던 말이었다고 한다. 1988년 12명의 미결수가 호송되던 중 탈주했으나, 탈주 9일째 마지막 남은 네 명은 결국 서울 북가좌동 가정집에서 한 가족을 인질로 삼고 경찰과 대치하게 된다. 이들은 우리 사회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돌아간다는 메시지를 전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터뜨렸다. 88울림편을 개최한 자부심으로 들떠있던 국민들은 이 범죄자들의 자살을 접하게 된 후 범의 형평성 문제를 인지하게 된다.

이들 중 한 명인 지강현은 긴박한 대처 중 영화처럼 경찰에게 함승 '홀리데이'를 틀어 줄 것을 요구한다. 이 슬픈 멜로디의 노래를 들으며 지강현은 인질인 그 집 딸을 옆에 두고 결국 자신의 목을 갖고 만다. 그는 '돈 없고 권력 없이 못 사는 게 이 사회라고 울부짚었으며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유일

한 일을 하겠다고 하였다. 두 사람은 이미 다른 방에서 자살을 했다. 총소리가 나고 이 상황이 전국에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되었다. 탈주범들은 자신들처럼 돈 없는 사람들만 무거운 형기를 받고 감옥에서 청춘을 씌킨다는 울분과 회한으로 가득 차 있었다. 대치하던 네 명 중 세 명이 그 날 죽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그러나 제일 어린 강영일은 살아남아 19년의 만기복역 후 출소했다. 인터뷰를 통해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관한 얘기도 들을 수가 있다.

1988년 10월 8일 탈주한 뒤 강영일이 보낸 편지(신동아 2013년 3월 유일한 생존자 강영일 인터뷰 기사)를 보자. 강영일은 "나는 법에 대해 큰 불만을 품고 있었다. 무식해서 한자는 잘 모르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인 우리나라 법에 큰 불만을 품고 있었다. OO야, 방송에서 떠드는 만큼 우리는 흉악범이 아니란다..."라고 썼다고 한다.

이 사건의 사회적 파장은 컸고 2006년에는 이 영화 같았던 실화를 바탕으로 진짜 영화 '홀리데이'도 만들어졌다. 영화 스토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중도독인 지강현(이성재)은 빈민촌 대치상황에서 악랄한 형사에게 동생까지 잃고 형량 7년, 보호감호 법에 의거 10년의 형량을 받아 도합 17년 동안 감옥에서 써야 할 운명이다. 감옥에서 만난 교도소 부소장(최민수)은 다른 아닌 동생을 총으로 쏘 죽인 형사. 지강현은 호시탐탐 교도소 부소장 김안석을 죽이기 위해 불붙을 가리지 않고 김안석은 그런 지강현을 집요하게 괴롭힌다.

이미 소설로도 불공평한 형기 얘기가 나온 바 있다. 뺑 한 조각을 훔치다 잡혀 징역 5년, 여러 차례 탈주시도로 모두 19년의 형을 살고 나온 장 발장(Jean Valjean)은 프랑스의 소설가 빅토르 위고(Victor-Marie Hugo)가 1862년 발표한 장편소설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인물이다. 노동자가 가난과 배

고름, 가엾은 조카들을 위해 뺑 한 조각을 훔친 죄를 다루고 있다. 주교의 집에서 하룻밤 묵어가던 날 장 발장은 은쟁이를 훔쳐 가지만, 주교가 용서해주어 그의 심성은 완전히 고화된다.

우리가 실제 인물 지강현의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은 '법은 만민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평범하고도 잘 알려진 사실이라 생각한다. 공직영의 소설 '도가니'를 읽으면 돈 권력 말고도 인맥과 학력으로 인해 형량이 결정되는 한국사회의 단면을 잘 알 수 있다. 법이 만민에게 평등하지 않을 때 사회는 흑독한 대가를 치른다. 안타깝게도 범죄자들의 외침인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 말은 지금 우리 사회가 고개를 끄덕이는 현상이 되었다.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왜냐하면 법은 약자가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칼럼니스트 우혜진)

낙산만평

안의영 (애니 4)



莫如樹人 막여수인

교단에서



최진철
(교양교육부 교양과정
외래교수)

교육은 사람을 길러내는 일련의 활동 또는 과정이다. 이는 관중이 지은 一年之計, 莫如樹木 일년지계 막여수곡이라는 글귀를 알게 된 후에 관중이 바라보는 교육의 관점에 동의한 생각이다. 이 글은 춘추시대 때 제 나라를 강국으로 만든 정치가 관중이 지은 관자의 권수 편에 나오는 말로 백 년의 계획으로 사람을 기르는 것 만만 것은 없다를 뜻으로 관중의 교육의 중요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一年之計, 莫如樹木 일년지계 막여수곡
일 년의 계획은 곡식을 심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

十年之計 莫如樹木 십년지계 막여수곡
십 년의 계획은 나무를 심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

百年之計 莫如樹人 백년지계 막여수인
백 년의 계획은 사람을 심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

一樹一穫者 穀也, 一樹十穫者 木也, 一樹百穫者 人也.
일수일확자 곡야, 일수십확자 목야, 일수백확자 인야.

〈하나를 심어 하나를 얻는 것은 곡식이다. 하나를 심어 열을 얻는 것은 나무다. 하나를 심어 백을 얻는 것은 사람이다〉

막여수인을 직역하면 사람을 심는 다는 뜻이지만 이는 교육을 의미하는 말로 관중은 이

미 길러진 사람을 활용하는 것보다 미래의 동량이 될 사람 즉, 인재를 교육을 통해 길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런 것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현재 대한민국 교육의 모습은 어떠한가?

백년의 계획을 세워 사람을 길러내자는 고대 선현들의 가르침보다는 대입 수확능력 시험만을 목표로 하는 초중등 교육과 취업교육에 열을 올리는 대학교육의 모습속에서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동량을 제대로 길러낼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와 조급함을 가지고 고서는 올바른 인재를 기를 수 없다. 교육의 특성인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기다림과 인내로 한 알의 밀알을 땅에 심고 정성껏 기르는 농부의 마음으로 교육이라는 옥토에 사람을 길러보자.

페이스북 '좋아요'의 결코 '좋지 않은' 기능



기자수첩
김근영 기자
(행정 2)

요즘 20대치고 '페이스북'(이하 '페북')을 하지 않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4명 중 1명은 페북을 하고 있다. 페북이 이렇게 인기몰이를 하게 된 이유는 기존 SNS와 차별화 된 기능인 '좋아요'의 영향이 크다. 페북에서 지인이 '좋아요'를 누른 게시물은 내 뉴스피드에서도 보이게 된다. 따라서 '좋아요'가 많이 눌린 게시물은 적게는 수만 명이, 많게는 수백만 명의 페북 이용자들에게 보게 된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필자의 뉴스피드에 소위 말하는 '공약 게시물'이 뜨기 시작했다. 공약 게시물이란 '이 글의 '좋아요' 수가 10만개를 넘으면 동생이 담배를 끊는대요, 도와주세요' 또는 '이 글의 '좋아요' 수가 20만개를 넘으면 남자친구가 게임을 끊겠다고 합니다'와 같은 종류의 글이다.

처음엔 재미있었다. 나도 재미삼아 사연을 읽

은 후 '좋아요'를 누르기도 했다. 하지만 점점 이런 종류의 게시물에 내 뉴스피드를 도배하기 시작했고 도가 지나친 공약들도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 중 가장 눈살이 찌푸려졌던 게시물은 "좋아요 수가 20만개를 넘으면 여자친구한테 프로포즈를 하겠습니까?"는 공약을 담은 글이었다. 애인에게 일생을 함께 하자고 청하는 프로포즈마저 좋아요 수로 결정다니. 그러면 좋아요 수가 20만개가 되지 않으면 프로포즈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인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다른 공약 게시물들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들은 사랑하는 애인, 가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게임과 담배를 끊지 않았다. 하지만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누른 '좋아요'에 그것들을 끊겠다고. '좋아요'가 그들에게는 도대체 무슨 의미이

길래 그런 것일까? 흔히 요즘 현대인들은 정서가 메말랐다고 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페북의 공약 게시물에 그러한 양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예인 것 같다. '좋아요'를 부족한 관심을 끌고 메마른 정서를 적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공약을 내건 사람들은 원하는 만큼의 좋아요 수를 얻고 과연 실제로 게임이나 담배를 끊었을까? 아마 대부분이 그렇지 못했을 것이다.

공약 게시물을 올리는 대신 자신을 사랑해주는 지인들의 충고에 좀더 귀를 기울이면 어떨까. 모르는 사람들의 일회성 관심을 바라기 보단, 직접 삶을 부대끼며 함께 살아가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를 더욱 따뜻한 세상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뮤지컬로 한 걸음



낙산에 올라
최혜원 학생
(행정 2)

당신은 어떤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는가? 문화생활 중 요즘 가장 뜨고 있는 것은 단연 뮤지컬이라 할 수 있겠다. 거리를 지날 때 마다 보이는 버스에 붙어있는 광고부터 시작해서 텔레비전에서까지 뮤지컬 광고를 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또한 많은 배우들이 뮤지컬로, 뮤지컬배우들이 드라마나 영화로의 이동이 늘면서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뮤지컬의 특징을 생각해본다면 '접하기 어렵다', '요즘말로 오글거린다', '비싸다' 등을 떠올릴지 모르겠다. 각자 생각하는 것이 다르겠지만 저 단어들에 뮤지컬의 전부가 아니다. 뮤지컬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러 다니는 것일까?

필자가 생각하기에 뮤지컬의 매력은 현장감과 주인공들의 노래를 통해서 그들이 느끼는 감정과 삶의 이야기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점이 아닐까 싶다. 뮤지컬은 TV를 통해보는 드라마, 스크린을 통해 보는 영화와 달리 무대에서 라이브로 진행된다. 배우들의 연기

를 직접 눈을 통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가깝고 친근하게 느껴지며 그들의 감정을 바로 느낄 수 있다. 소극장에서는 배우와 관객이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 객석을 무대로 활용해 통로 사이사이를 지나다니기도 하고, 배우들이 공연 중 관객에게 말을 걸기도 하며, 어떤 공연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배우들에게 이끌려 무대에 서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험들이 나 자신이 이 공연의 한 일원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한다. 중·대극장에서는 큰 무대를 활용한 다양한 효과나 장치 사용되고, 화려한 의상, 오케스트라로 연주되는 라이브, 멋진 군무 등이 무대에서 눈을 떼지 못하게 한다.

또한 가깝게는 사랑과 우정에서부터, 크게는 시대적 배경까지 노래를 통해 들려주는 주인공들의 이야기에서 공감을 얻을 수 있다. 노래를 통해 대사를 전달하는 것에 대해 부담스럽고 꺼려할 수 있는데, 노래는 그냥 말로 하는 대사보다 훨씬 더 공감하게 하고 감동시키는

극적인 효과를 준다. 뮤지컬에서 배우가 노래하는 것은 대사를 부드럽게 표현하면서도 감정을 더 확실하게 전달하는 좋은 매개체라 생각한다면 전혀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

뮤지컬을 처음 보는 사람에게 고르는 방법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이렇다. 자신에게 맞는 시간, 비용을 먼저 고려한 뒤, 뮤지컬의 줄거리를 본 후 극의 스토리를 파악해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면 된다. 인터넷에 있는 리뷰를 통해 확인하는 것도 좋다. 이것도 저것도 다 어렵다면 우리나라에서 여러 번 했던 뮤지컬을 고르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여러 번 했다는 것은 그만큼 좋은 공연이기 때문이다.

뮤지컬은 어려운 문화생활이 아니며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또한 뮤지컬에 비싼 공연만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특히 대학교에서 가까운 대학로에서 뮤지컬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볼 수 있다. 처음 뮤지컬을 보는 것이라면 대학로에서 이번 방학에 뮤지컬 나들이를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 사 설 ·

상향식 맞춤형 특성화가 필요한 시점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 건동홍 국송세 단 광명상가 한서삼'. 한번쯤 들어보고 익숙할 인(m) 서울 대학교 서열이다. 학생들은 거의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이는 외부에서 특히 수험생들이 한성대학교를 평가하는 하나의 잣대이다.

지난 한성대신문 제482호 1면 머릿기사는 '대학기관평가인증 현장평가단 방문'이었고 소재목으로는 '총 강명회에서 '대체적'으로 좋은 평가가 이뤄져'였다. 이러한 기사를 읽으며 우리 한성대학교는 한고비 넘겼다고 생각은 되지만 또 다른 더 큰 파도가 우리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대학을 덮고 있다.

한성대학교의 입학정원은 주간 1,000명, 야간 620명 총 1,620명이다. 대학진학 대상 연령인 18세 인구는 2006년 61만 명에서 증가하여 2012년 69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18년에는 56만 명, 2025년에는 42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지금부터 약 10년 뒤의 대학교 신입생은 지금보다 16만 명~17만 명이 정도 줄어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한성대학교 규모에 대한 100개가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대학 신입생의 감소에 대비하여 교육부는 전국의 대학을 5개 그룹화(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하고 최우수 대학은 자율대학, 우수는 일반대학, 보통은 추가대학, 미흡은 국가장학금 II유형 제한, 학자금 대출 제한 및 정원 대폭감축, 매우

미흡은 국가장학금 전체 제한, 학자금 최소 대출 및 정원 대폭감축 및 일부 퇴출을 시키겠다고 했다.

이러한 냉엄한 현실 앞에 한성대학교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한성대학교의 현재 상황은 노력의 정도에 따라 최고 '우수' 등급을 받을 수도 있고 최저 '미흡' 등급을 받을 수도 있다. 현재 정량 지표 8개를 살펴보면 전인교원 확보율, 재학생 충원율 등 2개 지표는 전국 평균 이상이며, 나머지 취업률을 포함한 6개 지표는 평균 이하이다. 그리고 2014년부터는 정성적인 특성화 지표가 추가될 예정이다.

이러한 현재의 지표 수준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2개 지표를 제외한 나머지 지표들을 1단계 이상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지표 수준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인 접근과 대학 구성원 전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우선 특성화를 통하여 다른 학교와의 차별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한 특성화는 하향식으로 대학본부에서 주도할 수도 있으나 좀 더 바람직한 것은 상향식으로 각 과에서 주도하여 각과별 맞춤형 특성화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상명하달식의 방법보다는 언제나 스스로 해야 한다는 의식을 바탕으로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그 결과가 성공적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제 친구 실패를 소개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실패와 마주하게 된다. 이 알곳은 친구는 좌절을 피리에 달고 나타난다. 그리고 실패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존재감을 드러낸다. 그 속에서 반짝 반짝 빛난다. 숨고 싶은 만큼 말다. 실패는 언제나 그렇다. 그래서 기분이 나쁘다. 좀 많이.

실패가 데려온 좌절을 떨쳐내면 끝일까? 어딘가 숨어있던 두 친구가 고개를 숙 내린다. 바로 도전에 대한 무기력과 무의식적인 두려움이다. 이 반갑지 않은 친구들은 우리를 괴롭힌다. 그때마다 되뇌는 말이 있을 것이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다' 이 풀 보기 싫은 친구가 성공의 어머니라니. 하지만 이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 가끔은 실패가 나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다.

우리는 정말 많은 실패를 겪는다. 점수매뉴로 시킨 불고기백반에 불고기는 없고 당면만 가득 들었을 때. 친구들과 함께 도전한 공모전에서 나만 수상을 못할 때. 힘들게 스펀을 쌓아 자기소개서를 쓰는 기계처럼 받았던 자소서 작성했지만 모두 광탈할 때. 실패가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한다. "오랜만이야. 보고싶었어"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이 친구는 꽤 단순하다. 실패를 몇 번해본 사람이라던 말 것이다. 실패가 데려온 다른 친구들을 예상할 수 있다. 그 친구들의 신장과 몸무게는 그때그때 다르지만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 실패가 손잡고 올 좌절감, 무기력, 두려움 말이다.

실패를 계속 겪고 있는 우리는 답답해 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사실 답답해지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은 물론 알고 있다.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자 답답하게 이겨낼 수 있다고 말이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다'라는 명언이 식상하다면 외워두자. '실패는 좀 더 현명하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라고 헨리포드가 말했다. 이제 실패가 내 어깨가 두드리는 순간을 두려워 하지말자. '어서와라며 반겨보자. 그리고 실패가 물고 오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걸어보자. 걷다보면 이 친구들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흔하디 흔하다. 성공이 전진이라면 실패는 후퇴라고 하지만 아니다. 성공이 전진이라면 실패는 잠시 멈춤이다. 잠깐 그자리에 서있는 것뿐이다. 다시 걸으면 된다. 오늘도 나는 지금 실패와 손잡고 걷고 있다.



<제6회 한성대 영상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대학생들의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멋진 꿈을 카메라와 영상에 담아 펼쳐 보이는 축제의 자리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한성대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전국의 대학생 팀들이 참여하여 경연을 벌이는 자리를 마련하였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6회 한성대 영상제 본선 진출자 10팀

작품명	소요시간	대표자 (대표자 학교명)
1 유실물 보관소	4분 10초	안익영(한성대학교)
2 기다림의 미학	11분 58초	김사임(고려대학교)
3 로어(Lore)	7분 4초	안정호(한국예술종합학교)
4 트루덕쇼	9분 59초	박상현(한성대학교)
5 푸른별화	11분 52초	정다솜(공주대학교)
6 빌려드립니다	17분	강한별(동아방송예술대학교)
7 휴먼자를위한나라는 없다	8분 51초	안초엽(한성대학교)
8 성스러운 교육	13분	손태훈(서경대학교)
9 희망을 그리다	4분 38초	임유나(한성대학교)
10 킹카다운 킹카	15분 13초	김재홍(영지대학교)

<영상제 순서>

- 1.개회사
- 2.축사
- 3.심사위원 인사 및 심사기준 발표
- 4.본선 진출작 상영
- 5.방청석 행운상 추첨
- 6.심사평 및 시상식
- 7.폐회사

시 간 : 2013년 11월 22일 오후 2시 ~ 5시 30분
장 소 : 한성대학교 미래관 D.L.C.
심사위원 : 전윤수(영화 <식객> 감독, 아주대 교수),
 인건형(영화<고양이가 있었다>감독,
 한성대 겸임교수), 조난숙(한성대 교수),
 이태주(한성대 교수), 김로빈(한성대 교수),
 이춘진(한성대 교수),
 김귀옥(영상제 집행위원장, 한성대 교수)

행운권을 추첨하여 푸짐한 사은품을 드립니다!!! 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한성대학교 교양학부 우촌관 509호(02-760-4446)으로 문의바랍니다.

꿈의 대화

하이힐보다 운동화가 어울리는 큐레이터를 만나다

황정인 독립 큐레이터와 이효진 학우의 꿈의 대화

‘꿈의 대화’는 꿈에 대해 멘토와 멘티, 기자가 한자리에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기획코너입니다. 꿈을 실현하여 성공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멘토와 그 꿈을 좇는 멘티(본교학생)가 함께 꿈을 이야기함으로써 멘티는 꿈을 향해 보다 명확해진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편집자주>

미래의 직업을 선택하는 데에 두 가지의 길이 있다고 한다. ‘좋아하는 직업과 조건에 따라 하는 직업’이 그것이다. 당신은 어떤 직업을 선택할 미래를 꿈꾸는가. 이번 꿈의 대화의 인물은 ‘좋아서 하는 직업’을 선택한 큐레이터를 만나보았다.

큐레이터란 직업이 낯선 사람들에게 큐레이터는 영화 속 고요한 미술

멘티 : 하나의 전시를 준비하는데 큐레이터가 해야 하는 일이 궁금합니다.

멘토 : 하나의 전시를 진행하기 위해 전시기간의 5-6배에 달하는 시간 동안 준비해야 합니다. 약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지요. 큐레이터에 따라 하는 일이 다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전시 주제에 대한 고민을 시작으로 작가, 작품섭외, 기획서 작성, 기금 조달, 행정절차, 전시홍보, 마지막 감사인사, 기록 등의 많은 전시기획에 관련하여 대부분의 일을 합니다.

멘티 : 어떻게 큐레이터로서 처음 일을 하셨나요?

멘토 : 저의 경우에는 홍익대학교에서 예술학을 공부하던 대학생 시절에 큐레이터에 관심이 있어 관련 동아리활동을 했습니다. 마포구청에서 주최하는 홍대 거리미술전을 저희 동아리가 맡아서 전시

본인이 원하는 전시를 기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멘티 : 큐레이터는 미술을 연구하는 학예사이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의 학력이 필요하고 미술이론이외에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요?

멘토 : 일반적으로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능력도 중요합니다. 현대미술과 같은 경우에는 해외작가, 해외큐레이터 등 외국 예술관계자들이 한국으로 많이 들어오고 이들과 소통해야하기 때문에 영어는 기본적으로 해야 합니다.

멘티 : 학예사 자격증은 큐레이터가 되기 위해 필수적인 자격증인가요?

멘토 : 학예사 자격증은 있으면 좋지만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미술관 건립조건에 학예사 자격을 가진 큐레이터가 2명 이상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어, 고용될 때 조금의 가산점수를 받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멘티 : 예술직종에서는 해외유학이 당연한 듯 여겨지기도 합니다. 큐레이터가 되는 데에 유학이 큰 영향이 끼치는지 궁금합니다.

멘토 : 굳이 해외에 나가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의 대학원이나 기관을 통해 충분히 큐레이터에게 필요한 이론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과거보다 유학사정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무리하여 유학을 갈 필요는 없습니다. 해외 대학원의 큐레이터 관련 학과를 찾는 것보다 국내에서 실무를 경험 한 후에 해외경험의 필요성을 느껴 문문을 넓히려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저는 유학을 2년 정도 갔다 오긴 했습니다만 큐레이터가 된 이후에 갔다 왔습니다. 기관큐레이터의 일을 하다가 추가적인 이론 공부를 하고 싶었고, 해외여행도 겸사겸사 파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현대미술을 다루기 위해서는 해외여행이 귀 기울여야 하는데 국내에서도 충분합니다.

멘티 : 멘토님이 신입큐레이터를 고용한다면 어느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실 건가요?

멘토 : 풍부한 이론지식과 실무경력이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부분이지만 가장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큐레이터는 작가나 다른 관계자와 소통을 많이 해야 하는 직업입니다. 단 몇분의 면접을 통해 파악해야 합니다. 몇 번의 작업을 같이 진행하면서 알게 되



는 인격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몇 십 명의 지원자들과 일일이 작업을 할 수 없는 사정입니다. 인격을 한번 더 확실하게 파악하기 위해 고용 마지막 절차에서 확인 차, 지원자의 전 직장을 연락하여 알아보기도 합니다.

멘티 : 큐레이터를 꿈꾸는 대학생들이 꼭 경험했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해주세요.

멘토 : 큐레이터의 일은 사람들과 의견을 조율하여 소통하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작가, 업체와 원활히 대화, 조율하여 의견을 취합하기 때문이지요.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상황을 자신을 노출시켜 소통의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전시장을 많이 다니는 습관을 들였으면 합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강연과 심포지엄 등도 있으니 눈여겨보고 발표를 팔아서라도 참여하길 바랍니다.

멘티 : 제 전공은 경영학과입니다. 큐레이터 관련 전공이 아니라 고민이 많습니다.

멘토 : 졸업 후 관련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다른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공부하면 됩니다. 특별히 큐레이터가 아니라도 관련 업계에 다양한 직업도 있으니 현재 전공도 잘 살리면서 꿈을 찾았으면 합니다.

멘티의 전공이 경영학과인 만큼 큐레이터로 지원할 때 이를 잘 살릴 수 있습니다. 지원하고 싶은 미술관의 전체적인 운영이나 마케팅 방면으로도 관심을 가져 문제점을 제시하고 조망해보고 싶다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콤플렉스를 장점으로 부각시켰으면 합니다. 제 주변의 한 큐레이터는 사회학을 전공하여 다른 큐레이터들 보다 큰 시각을 갖고 작품을 해석하는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멘티 : 마지막으로 멘티에게 하고 싶은 말?

멘토 : 평소 자신의 아이디어를 정리하여 자신만의 전시 기획서를 단 한 장으로 준비해 놓으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회는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갑작스럽게 기회가 오더라도 자신의 강점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한 장의 기획서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꿈을 이룬 이효진 학생의 미래를 기대하겠습니다.

오그림 기자 1233075@hansung.ac.kr

교직원을 만나다

우리학교의 프로그래머, 유영기 팀원을 만나다



미래관 열람실을 이용해보지 않은 사람은 드물 것이다. 열람실을 가거나 미래관 열람실을 이용하기 위해 미래관 2층에 가면 안쪽에 투명한 문이 하나 보인다. 아마 그 안쪽까지 들어가 본 학생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곳에서 바로 우리들의 숨은 조력자, 정보화팀이 근무하고 있다.

정보화팀은 교내 네트워크와 서버를 관리하고 학사행정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교내 홈페이지와 종합정보시스템도 정보화팀이 관리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행정업무의 전산화 및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교내에서 노트북이나 핸드폰에 Wifi를 연결하고 싶는데, 잘되지 않아 곤란한 경험이 있는가? 정보화팀에 기기를 들고 가면 친절히 도와줄 것이다.

이번에 만난 교직원은 정보화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영기 팀원이다. 유영기 팀원이 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학사, 인사, 교수 초빙, 직원 채용에 관한 업무이다. 근무한지 1년이 다 되어가는 그는 정보통신 관련 전공을 살려 정보화팀에서 근무하게 되었다고 한다.

유영기 팀원은 학사업무 관련 학사지원팀에서 교직원이 필요로 하는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기능인 종합정보시스템의 휴·복학신청, 과제물 제출과 같은 메뉴를 개발하는 것도 그의 업무 중 하나이다.

유영기 팀원은 “이 외에 신규기능도 요청이 들어오면 개발에 착수하기도 한다. 인사업무에 관련해서는 우리학교의 교수님과 교직원분들의 인적사항을 정리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총무인사팀에게 전해준다. 학생

들의 인적사항을 정리하는데 학사프로그램이 필요한 것과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직원 채용 업무에 있어 온라인상으로 지원서류를 받을 때 사용하는 웹사이트와 프로그램도 만든다. 지원자들의 통계를 내기도 하고 지원서를 정보처리에 용이하게 정리한다.

유영기 팀원은 “사실 주요 업무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보니 학생들과 교류는 적은 편이다. 종종 학생들에게 문의전화가 올 때가 있다. 가장 많이 문의하는 것이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과제물을 제출할 때 생기는 오류이다”며 “대부분 본인 컴퓨터의 설정상 문제이다. 전화로 문제를 해결해주시고 하지만 학생들이 어려워하면 원격지원서비스를 통해 직접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로 학생의 과제물을 찾아준 일을 꼽았다. 그는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제출한 과제물은 서버용량 문제 때문에 한 학기가 지나면 삭제된다. 그런데 한 학생이 자신이 지난학기에 종합정보시스템에 제출했던 과제물이 꼭 필요하다고 부탁을 해 온 적이 있다. 회사 면접 때 제출할 포트폴리오에 넣어야 하는데 파일이 저장된 USB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었다. 운이 좋게 그 과제물을 찾아 학생에게 보내줬던 일이 기억에 남는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유영기 팀원은 마지막으로 “비록 내가 학교 선배는 아니지만, 인생 선배로서 한성대 학생들에게 대학생이 할 수 있는 활동은 최대한 많이 해보라고 당부하고 싶다. 도서관도 자주 이용해 지식을 쌓아 나갔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근영 기자 kc2120@hansung.ac.kr



관의 대리석 위를 똑각똑각 하이힐을 신고 걷는 여자캐릭터로 떠오를 수 있다. 그렇지만 현실의 큐레이터는 매일 운동화를 신고, 전시장 벽에 페인트를 직접 바르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는 사실, 학예사라고도 불리며 학예연구와 예술전시 기획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고학력자인 동시에 몸으로 하는 고된 실무도 맡아 한다. 이에 이번 꿈의 대화에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선택한 멘토 황정인 독립 큐레이터와 큐레이터의 꿈을 가진 이효진(경영 4)학우가 만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멘티 : 멘토님은 처음 어떻게 큐레이터의 꿈을 꾸시게 되었나요?

멘토 : 어렸을 적에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정식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각종 관련 대회 상을 받았습니다. 미술작업을 하고 싶었지만 제가 고등학생이었던 90년대 후반에 미술작가로서의 삶은 이상적이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도 미술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 긍정적이지 않았고 저도 굳이 부모님과 맞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주위 지인들에게 큐레이터라는 직업을 제안 받았는데 알아보니 꽤나 흥미로운 직업이었습니다.

사진이야기



친구들과 시험끝난 기념으로 역사폴축제 마지막 날에 갔다 왔는데 정말 이쁘고 좋은 추억이었어요~ 덕분에 스트레스도 바람과 함께 날아간 기분^^지금도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커플들에게는 훌륭한 데이트 장소 같아요!

박지혜(영어영문 4)



A comic strip titled 'Inko' (ink) showing a character's journey from a student to a curator. The panels are labeled with years: '1, 2 학년' (1st, 2nd year), '3, 4 학년' (3rd, 4th year), '학생회장, 조교' (Student Council President, Teaching Assistant), '조교, 교수' (Teaching Assistant, Professor), and '교직원' (Faculty). The dialogue includes: '아! 교직원들 완전 부끄러워! 공무원이야! 우리가 일하잖아? 우리 근간이라고!!!', '그래도 선배들끼리 비하면 알바이지. 제대하면 안 돼. 우리도 일하잖아? 역시 기소 같은 거 봐!', '아, 모중 애들 완전 새끼가 없네! 인사도 제대할 뻔 했지. 그리고 그 조교들 뭐 계세요?', '썩! 돌리겠어! 이번에 바뀐 조교 '이원개'야.', '최승환입니다. 예술이 참머가 저조해요...', '상산래?! 고수님 성격 독라?! 라데 전부 씬해!', '그게 고수님.. 이번엔 예뻐서 조바네서 힘투라곤...', '사육사한테 연락해 봤어?', '최고수님도 부탁했어요. 안 떠났고 말씀드려도 딱히 아니에요.', '사육사, 이번엔 절대 안돼. 딱 전해서 딱해!', '누가 나쁜 걸까요?'



▲ 영화 <워미디스(Warm Bodies)>의 주인공 R이 꽃을 들고있는 모습

당신도 좀비가 될 수 있다!

영화와 게임에서 등장하던 좀비. 좀비는 원래 아메리카 서인도 제국의 주술사가 약과 주술로 소생시킨 시체를 일컫는다. 하지만 최근 좀비는 현대사회 속에서 '병'적 존재로 등장한다. 영화 28일 후(28 Days Later, 2002), 워미디스(Warm Bodies, 2013) 및 월드워 Z(World War Z, 2013)에서 좀비가 되는 이유는 주술이 아닌 '바이러스'이다. 바이러스라는 과학적인 원인 때문일까. 좀비는 다른 판타지 주인공보다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살아난 시체. 이 거림직한 존재가 인기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좀비의 존재를 철학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이유 없는 유행은 없다. 첨단 과학의 시대, '해리포터' 시리즈는 왜 인기를 끌까? 어떤 기술이건 처음 등장할 때는 '마법'같이 보인다. 전화가 처음 나왔을 때를 상상해 보라. 말리 있는 사람과 대화한다는 사실 자체가 사람들에게는 마술이었을 테다. 휴대폰 또한 사람들에게 '있을 것 같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경험을 안겼다.

해리포터는 이런 '마법 같은 기술'들의 상징 아닐까? 소설 속 마법사들은 마술지팡이가 있어야 한다. 지팡이가 없으면 어떤 기술도 쓸 수 없다. 마술 지팡이는 스마트폰을 떠올리게 한다. 스마트폰으로 우리는 별의별 것을 앉은 자리에서 처리할 수 있다. 없을 때는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한다.

반지의 제왕도 마찬가지다. '절대반지'를 차지한 자는 엄청난 힘을 얻는다. 그러나 인격은 황량해지고 만다. 절대반지는 '돈과 똑 닮은 꼴이다. 돈만 있다면 절대반지가 있을 때처럼 뭐든 지 할 수 있다. 반면, 절대반지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듯, 돈도 술한 갈등과 다툼을 낳는다. 그러니 '반지의 제왕' 스토리에 현대인들이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 반지를 둘러싼 갈등은 돈을 놓고 벌어지는 일상의 투쟁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좀비 유행'은 뭐로 설명해야 할까? 좀비에게는 감정이 없다. 한 때는 사람이었지만, 좀비가 된 후로는 살아 움직이는 시체일 뿐이다. 주술을 건 사람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 기도 하며, 말쑥한 사람을 몰아 좀비로 만들기도 한다.

여기서 '좀비'를 '감정노동자'로 바꾸어 보라. 감정노동자에게는 '감정'이 없다. 상대가 누구건, 어떻게 나오건 '업무 매뉴얼'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자신의 뜻보다는 고용주의 의도와 생각이 중요하다. 게다가 감정노동자들은 점점 늘어난다. 치열한 경쟁은 있는 그대로 생각하고 감정을 드러내는 이들을 직장 바깥으로 몰아낸다.

좀비는 무섭고 징그럽다. 감정노동자의 영혼 또한 그렇지 않을까? 겉으로 웃고 있을 뿐, 속은 씩을 데로 씩어 있다. 이유 없는 관심은 없다. 좀비에 끌리는 까닭은 우리의 삶이 좀비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 좀비가 되고픈 사람은 없다. 사랑하는 이가 좀비로 바뀌었다면, 어떻게 해서든 다시 인간으로 되돌려 놓고 싶을 테다. 왜 그럴까?

철학자 데카르트는 동물을 '자동기계(automata)'라고 보았다. 베고프먼



▲ 미국 드라마 <워킹데드(The Walking Dead)>의 한 장면이다

먹고, 졸리면 자는 것처럼 몸이 시키는 대로 움직일 뿐이라는 거다. 반면, 인간은 영혼이 있기에 자동기계가 아니다. 영혼을 내팽개칠 때 우리 삶은 혐오스러워진다. 인생이 동물과 별 다를 게 없어지는 탓이다.

감정노동은 사회생활 곳곳에 퍼져 있다. 세상은 우리에게 살아남으려면 '자동기계가' 되라고 다그친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영혼을 잃은 채 좀비처럼 움직인다. 사랑하는 이가 기계가 되었을 때 심정은 어떨까? 하루라도 빨리 인간으로 돌아오라는 절절함이 생기지 않겠는가. 좀비물을 보며 좀비로 바뀌는 세상에 안타까워지며 자꾸만 빠져드는 까닭 또한 여기에 있다. 이유 없는 유행은 없다. 좀비 유행을 따져 물어보면 우리 현실을 진단할 일이 다.

인광복 중동고 철학교사, 철학박사 timas@joongdong.org

공동학술세미나 '지방의 재발견' 진행해



오는 11월 15일 본교 학습관 206호에서 '지방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공동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과 한국행정학회 비관행정연구회가 주최하고 한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주관했다. 이종수(한성대) 명예 교수의 사회로 세미나가 시작됐다.

첫 번째로 발표한 한인섭(조선대) 교수는 지역복지재단의 역할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세미나의 문을 열었다. 그는 우리나라 지역복지 현황을 설명했다. 기초복지재단의 경우, 자발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정을 확대하고 수요자와 공급자의 네트워크 구축이 가장 필요하다고 전했다.

다음에는 김정렬(대구대) 교수가 산청한방약초연구소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지자체연구소 구축사업에 대해 평가했다. 지역혁신체제로 지정되는 클러스터 정책을 통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박석희(가톨릭대) 교수는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한 사립대학 경영컨설팅사업의 과제에 대해 발표를 했다. 이에 대해 그는 교육부가 부실 대학보다 비리 대학을 더

비중있게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성화된 학과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컨설팅 사업이 퇴출 대학이 목적이 아닌 대학의 경쟁력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전주상(한성대) 교수는 한인섭 교수의 발표에 대해 효율성, 전문성, 자율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의 기능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찬동(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김정렬 교수의 발표에 대해 목적과 수단관계로 평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석희 교수의 발표에 대해 신뢰영(경주대) 교수는 지방의 많은 대학이 사라지면 가난한 여건에 있는 아이들이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파괴한다면서 '고등교육의 공공성'에 대해 강조했다.

토론은 사회지의 진행에 따라 매끄럽게 진행되었으며, 정부의 정책과 대학 간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열띤 의견들이 많았다. 이번 세미나는 지역의 복지, 상생, 대학에 대한 논의를 통해 향후 지역정책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방향과 전략을 제시했다.

박석희 수습기자 psyh13@hansung.ac.kr

IT한 소식

스마트라는 이름의 함정

TV, 냉장고에 스마트는 아직 어울리지 않아
혁신 넘어선 가치 제공해야 '비욘드 스마트폰'으로 인정

스마트폰, 태블릿 등 스마트 기기의 대중화는 일상생활에 적지 않은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 정보검색에서부터 전자상거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음악 및 동영상 감상 등 할 수 있는 것으로만 따지면 수십 가지가 넘는다.

스마트 기기는 단순히 제품의 보급과 활용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스마트' 열풍을 불러일으키는 기폭제로 작용했다. 주변에서 분야나 요소를 가리지 않고 스마트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게 됐다. 예기다. 무엇이거나 어떤 제품이거나 특별한 재주가 있으면 스마트가 남발되고 있는 세상이다. 물론 스마트 딱지를 붙였다고 무조건 똑똑한 제품이 아니다. 대표적인 것이 TV와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이다.

먼저 스마트TV는 지난 2010년부터 관련 모델이 선보이기 시작했다. 당시만 하더라도 스마트폰 열풍이 상당한 터여서 스마트TV 출시는 가정사실로 받아들여졌고 시장에서의 성공도 어느 정도 보장받은 것처럼 보였다.

3년이 지난 현재 스마트TV 발전은 지지부진하다. 보급은 어느 정도 이뤄진 것 같은데 쓰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다. 실제로 올해 2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TV를 구입한 국내 소비자 가운데 인터넷 검색 및 SNS 등을 이용한 비중은 0.1%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정도면 있으나만만한 기능이나 다름없다.

스마트용 보급품이나 통신 인프라가 잘 갖춰진 우리나라가 이 정도니 해외도 그다지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다. 구글이나 인텔도 스마트TV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진출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성과는 이루지 못한 상태다.

스마트 냉장고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냉장고에 고해상도 액정표시장치(LCD)나 중앙처리장치(CPU)를 장착하더라도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스마트 냉장고가 예외 없이 LCD를 장착하고 TV를 보거나 웹서핑을 즐길 수 있도록 했지만 이를 활용하는 소비자는 거의 없다.

세탁기도 마찬가지다. 와이파이가 스마트, 태블릿 등 스마트 기기와 연동해 원격제어가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빨랫감을 넣고 빼는 작업이 필요하다. 세탁기 앞에서 버튼을 누르는 것이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편리하다.

결국 핵심은 서비스다. 애플이 피쳐폰에서 스마트폰 시대를 가속화할 수 있던 것도 탄탄한 서비스가 결합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애플을 보고 '기반 기술을 재조합한 배끼기 혁신', '다른 업체의 서비스를 조금씩 덧붙인 누더기' 등 혹평을 하는 경우가 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누구나 머릿속으로 생각하던 것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애플이 인정받아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애플을 지켜본 TV와 가전제품 업계

는 저마다 스마트를 앞세웠다. 나름대로 성능, 기능, 서비스 등에 막대한 투자를 했다. 애플과 다르지 않은 방식이었으나 그들은 시장에 혁신이라는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지 못했다. 상황이 지지부진하니 제품 판매가 원활하게 이뤄질리 없다. 결국 소비자가 외면하게 된 셈이다.

요즘 출시되고 있는 TV와 가전제품을 보면 스마트라는 단어를 붙였다고 해서 반드시 똑똑한 제품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물론 각 업체마다 사정이 있고 스마트폰, 태블릿과의 산업적인 생태계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비즈니스의 세계는 실패가 용납되지 않는다.

최근 스마트폰 업계는 '비욘드 스마트폰' 고민에 빠져있다. '스마트폰→태블릿'으로 이어지는 제품 판매가 빠른 속도로 포화상태에 다다르고 있다.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후보가 입방아에 오르내리지만 누가 차세대 스마트 기기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다만 확실한 것은 스마트폰이 그랬던 것처럼 소비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느낄 수 있고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사용자 경험(UX)을 넘어선 가치를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더불어 산업 전반적으로 파급효과가 크게 일어나는 제품이 진정한 스마트 세계의 승자가 될 것이다.

<디지털데일리> 이수환 기자 shulee@dailly.co.kr

食道樂

'식도락'은 우리에게 생소한 음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동안 우리가 음식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지식을 바로 잡기 위해 기획된 코너입니다.

못 말리는 국물사랑 이제 그만!

취의 원흉이 되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급기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매일 셋째 주 수요일을 '국 없는 날'로 정해서 국물요리를 덜 먹는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다. 국이나 찌개, 면류 등 국물요리가 나트륨 과잉섭취의 주범이라는 점을 널리 알리려서 국물섭취를 줄이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다. 짭짤한 국물의 나트륨이 하루 권장량(2000mg)의 두 배나 된다는 충격적인 분석 결과까지 대대적으로 매스컴을 통해 발표하기도 했다. 간질의 차이로 2위를 기록한 우동은 3396mg의 나트륨이 들어있다. 20위권에 이름을 올린 국물요리를 살펴보면 냉면, 울면, 기스면 등 국물이 있는 면 요리와 육개장, 부대찌개, 알탕, 감자탕, 동태찌개 등으로 모두 1인분에 2500mg이상의 나트륨이 들어있다. 한 그릇에서 건더기를 제외한 국물에는 56~75%의 나트륨이 들어있다. 국물을 먹지 않고 남기면 절반 이하로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가.

국물의 문제는 나트륨뿐이 아니다. 너무 뜨거운 국물을 먹는 것이 구강암이나 식도암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상위에서 끓이며 먹는 전골류나 식탁에 올려서도 한참을 보글대는 뚝배기, 그 뜨거운 국물을 식히지도 않고 떠먹었다가 입안이 얼얼해진 경험 혹시 없으신지. 유난히 뜨거운 국물을 좋아하

로 먹는 국물요리는 나트륨 과잉섭

먹는다고 후후룩 마셔댔다가는 큰코 다친다. 우리 입이나 식도의 세포는 모두 단백질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고온에 매우 약하다. 뜨거운 국물은 입과 식도를 통과하면서 세포를 손상시키고, 손상된 세포는 우리가 수시로 노출되는 발암물질에 더 쉽게 공격받아 최악의 경우에는 구강암, 식도암이 발생할 수도 있다.

자, 이제 국물을 멀리 할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봅시다. 평소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면 국물요리에 대한 욕구가 조금은 줄어든다. 식습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물요리를 유난히 즐기는 사람들은 대신 물을 거의 먹지 않는 경향이 있다. 물을 먹지 않아 몸에서 수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방울도 남김없이 국물을 마시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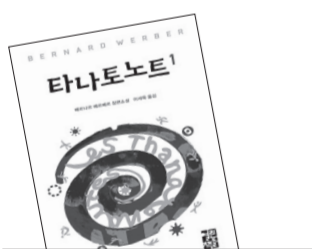
국그릇을 작은 것으로 바꿔보는 것도 의외로 효과가 크다. 작은 그릇이지만 한 그릇을 먹었다는 만족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루아침에 국물 밥상에서 없애기는 어렵지만 국그릇의 크기를 줄이고, 국그릇에 담은 국물의 량도 서서히 줄이면 결국 국물요리 의존도를 크게 낮출 수 있다.

이제 '밥과 국'이 삼차림의 기본이라는 선입관, 국이 있어야 밥을 먹는다는 생각을 지워버리자. 국물이 끝~내주면 나트륨도 끝~내준다.

이미숙 (이미숙의 건강한 식탁 원장)

다락방 책꽂이

죽음의 항해자



타나토노트 / 베르나르베베르 / 열린책들

베르나르베베르가 내한했다. 그의 내한으로 괜히 그의 책을 다시 펼쳐들게 된다. 프랑스에서보다 한국에서 더 인기가 많은 작가라고 불리기도 하는 베르나르베베르의 소설 속에는 그의 세계관이 담겨있다.

타나토노트는 기자가 처음으로 읽은 그의 소설이다. 타나토노트는 죽음을 뜻하는 그리스어 '타나토스'와 항해자 '나우테스'의 합성어로 우리말로로는 영계 탐사자를 의미한다. 주인공 미카엘 팽송은 죽음 뒤의 세계 즉 영계를 탐사하게 된다.

이 책은 과학적이면서 종교적이고 공상적이면서 정치적이다. 막연하게 생각되는 죽음에 대해 베르나르베베르는 흥미롭게 풀어내간다. 우주를 통해 사후세계를 탐사하는 영계탐사단. 그가 그려낸 사후세계는 은밀하면서도 대담하다. 독자로 하여금 사후세계의 호기심을 다시금 불러일으킨다.

타나토노트의 영계탐사 여가서 끝이 아니다. 후속작 『천사들의 제국』으로 이어진다.

비슷한 작품? 표절인가?

문화 속 오마주, 패러디, 패스티쉬 작품을 알아보다

극장에 영화를 보러갔는데 비슷한 영화내용과 장면을 어디서 본 듯하다. 오늘 처음 개봉한 영화인데 말로만 들은 표절을 내가 찾은 것인가. 영화뿐 아니라 대중가요도 마찬가지다. 최신 가요를 한 두 번 들었을 뿐인데 그다음 구절이 벌써 외워진다. 나의 예술적 감각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주위 지인들에게 얘기하면 그들은 유사한 경험을 들려준다. 그러던 중 어느 한 명이 말한다. "그거 오마주 작품 아니야?" "오마주가 뭘데, 패러디 아니야?"

오마주란
오마주는 존경, 감사의 의미의 프랑스어 명사이다. 영화나 문학, 회화 등의 문화 작품에서 후배 제작자가 특정 선배 제작자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현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쓰인다. 자신의 작품에 특정 선배 제작자의 작품의 연출이나 대사, 분위기 등을 이용하여 표현하는 것이다. 흔히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작품이 오마주로 표현되며 이용되고 있다. 오마주를 이용한 작품의 예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인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감독의 영화(대부)를 오마주하여 표현한 같은 S와르 영화의 박훈정 감독의 영화(신세계)와 맥조위, 유희강 감독의 영화(무간도)가 있다. 회화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다음의 그림으로 비교하며 알아보자.



화가 장 프랑수아 밀레(Jean Francois Millet)는 화가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가 가장 존경하는 선배화가였다. 고흐는 밀레의 작품을 자주 따라 하였는데 단순히 따라 그리는 것이 아니라 밀레에 대한 존경심을 내비쳤다.
고흐는 동생 테오에게 보내는 편지에 밀레를 '젊은 화가들의 아버지'라 칭하며 "그냥 단순히 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뒤랄까, 명암의 인상을 밀레와는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싶었다"고나 할까, 굳이 덧붙인다면 색채의 언어로 바꾼 것이지"라고 전하였다. 그림(가)는 밀레의 <낮잠>이고 이를 오마주한 그림(나)는 고흐의 <낮잠>이다. 고흐는 밀레의 그림에서 전체적인 구조와 내용은 빌려왔지만 표현을 다르게 하여 자신만의 성격을 나타냈다.



[사진 1988 S/S Yves Saint Laurent Style www.firstview.com/coll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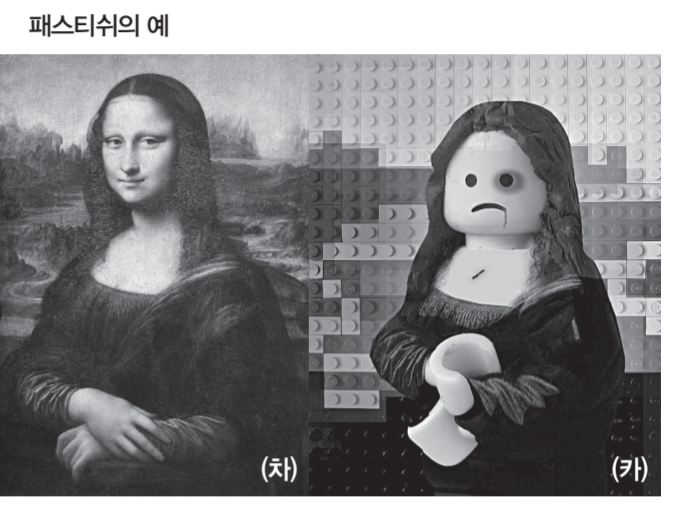
디자이너 이브 생 로랑(Yves Saint Laurent)은 유명 예술가들의 작품을 자신의 디자인으로 재창작하는 것을 즐겼다. 세익스피어, 반 고흐, 피카소 등의 예술가들의 작품으로부터 영감을 얻고 오마주 컬렉션을 자주 선보였다(1979~1989). 특히 그림(다), 그림(마)의 재킷은 1988년 S/S 컬렉션에서 화가 반 고흐의 '아이리스'-그림(라)와 '해바라기'-그림(바) 작품을 오마주하여 디자인 한 것이다. 당시 이 컬렉션은 뉴욕 타임즈로부터 찬사를 받기도 했다.

패러디란
패러디는 작년 씨이의 뮤직비디오가 유튜브를 통해 수많은 패러디 영상을 이끌어낸 사례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기존의 작품에서 패러디하고자 하는 요소를 빌려와 재창작하는 것을 패러디라 한다. 이와 유사하게 패스티쉬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는 기계적으로 단순히 모방하는 것을 뜻한다. 작품 제작자가 특별한 의도 없이 흔히 '복사', '붙여넣기'하는 것이다.
흔히 우리 주위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다른 얼굴로 합성된 영화 포스터'가 패스티쉬한 경우이다. 앞서 오마주, 패러디와 명확히 기준선을 그어 구분하기에 모호한 면이 있다. 하지만 대략적인 범주도 파악해보자면 오마주보다 패러디가, 패러디보다 패스티쉬의 범주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림(사)는 화가 조르조네(Giorgione)의 <잠자는 비너스>, 그림(아)는 티치아노(Tiziano Vecellio)의 <우르비노의 비너스>, 그림(자)는 에두아르 마네(Edouard Manet)의 <올랭피아>라는 작품이다. 왼쪽에서 오른쪽 순으로 왼쪽의 그림을 패러디하여 재창작한 작품이다. 패러디는 단순히 기존작품을 따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재창작하기 때문에 화가에 따라 다른 표현은 물론 제작당시의 사회를 볼 수 있다. <잠자는 비너스>에 표현된 여성은 이상화된 비너스의 모습을, <우르비노의 비너스>에서는 기존 비너스의 모습에 장신구가 더해져 보다 세속적인 비너스의 모습을 나타냈다. 이어 <올랭피아>는 여성의 나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평면적인 피부표현 등으로, 기존에 나체의 여성을 비너스라는 명목 하에 그리던 문화와 다르게 나체의 여성을 매춘여성으로 패러디하였다.

그림(자)는 레오나르도 다 빈치(Leonardo da Vinci)의 <모나리자>로 대중에게 익숙한 작품이다. 이 모나리자의 그림을 패스티쉬하여 표현한 작품으로 여러 작품이 있는데 그 중 그림(카)는 레고로 나타난 마르코 페체(Marco pece)의 <레고 모나리자>이다.



[사진 플리커(flickr.com/photos/udronotto)]

우리에게 익숙했던 영화 속 그 장면, 미술관의 그 그림은 아마도 오마주 혹은 패러디를 이용한 작품의 한 부분이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학교에서 '대중문화 속 우리'를 강의 하는 이현경(외대)교수는 "오마주, 패러디와 같은 차용의 표현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도래하면서 1960년대부터의 문화적 흐름이다. 우리 주변의 K-Pop의 경우에서도 이를 찾을 수 있다. Pop이라는 외국의 음악문화와 한국대중음악의 취향이 더해져 K-Pop이 생겨났고 이 문화가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며 현재의 문화 속 차용의 영향에 대해 말했다.

오그림 기자 1233075@hansung.ac.kr

그래피티, 골목 한 칸의 낙서에서 예술로

지난 2011년 패션계를 들쭉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사건의 내용인 즉 한 남성에게 의해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명품브랜드 상점 여러 곳이 가게 앞 유리에 페인트 테러를 당했다는 것이다. 테러를 당한 상점들 중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샤넬을 비롯한 고가의 명품 브랜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테러를 일으킨 장본인은 '키덜트(Kidult)'란 프랑스 그래피티 예술가이다. 그에 대해 알려진 것은 그의 예명이 '키덜트'라는 것 뿐, 그의 얼굴을 아는 이조차 없다. 이렇듯 베일 속에 감춰진 그가 같은 테러를 일으킨 이유 는 무엇일까. 그는 사회고위층의 물질 만능주의적 태도에 대해 비판하고자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한다. 자신의 뜻을 표현하고자 물질 만능주의적 소비를 부추기는 명품 매장들의 벽면을 캔버스 삼아 목소리를 낸 것이다. 그는 명품 매장의 외벽에 그래피티로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계층 간의 벽을 허물고자 했다고 한다.
그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 그래피티 아트(Graffiti art)는 1970년 뉴욕의 빈민가에서 가난한 흑인들, 푸에르토리코 소년들에 의한 거리 낙서로 시작되어 확산된 문화이다. 화려한 색깔로 자유를 나타내는 한편 메시지를 내포하는 예술 활동이다. 사회고위층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 하류문화, 거리문화로 칭해지는 그



▲ 파리의 한 명품 매장에 가해진 키덜트의 그래피티 테러

래피티 아트'를 선택한 듯하다. 키덜트에게 이색적으로 대응한 디자이너가 있었다. 루이비통의 수석디자이너를 맡고 있기도 한 마크 제이콥스가 그 주인공이다. 마크 제이콥스는 그를 고소하는 대신 그의 테러를 '테라 트라 부르며 하나의 예술로 존중한다'는 뜻을 내비치는 대안적 태도를 보였다. 나아가 키덜트에 의해 그래피티로 범법된 자신의 매장의 모습을 담아 한정판 티셔츠로 판매하기도 했다. 다른 브랜드들 역시 조용히 낙서를 지우려 했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키덜트는 자신의 그래피티 테러를 선처한 마크 제이콥스에게 그가 테러현장을 찍어 티셔츠로 판매한 것에 대해 경고하는 의미로 티셔츠의 가격을 \$686을 그래피티로 남기는 또 한 번의 테러를 하게 된다. 이 사건에 대한 결과는 키덜트의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갔다. 키덜트에 의해 테러를 당한 매장들은 큰 화제가 되어 긍정적인 홍보효과를 보기도 했다.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남긴 메시지가 예술 작품으로 받아들여지고 또다시 물질주의를 부추기는 수단이 되었다니 참

시의 그래피티 작품은 거리의 낙서에서 엄청난 투자의 대상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그의 작품은 불법경매를 통해 거액에 거래되기도 하며 위조품 역시 등장한 상태. 뱅크시는 자신의 작품이 거액에 거래되고 있는 이런 현상에 대해 거센 비판을 하고 나섰다. 작품을 사는 대신 자신의 작품을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하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키덜트와 뱅크시의 행보에 대해 '예술 혹은 *반달리즘의 표상'이라며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키덜트와 뱅크시가 부조리한 사회문제에 대해 폭도하고 문 제점을 바로 잡고자 한다는 것이다. 아 이리나하게 이들의 활동이 또 다시 상업주의를 복돋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미국의 한 미술품 수집가는 뱅크시에 대해 피카소와 고흐 같은 거장들의 뒤를 이을 천재예술가라 평하기도 했다. 이렇듯 스트리트 아트는 더 이상 뒷 골목 한 칸의 낙서가 아닌 한 분야의 예술의 한 분야로서 인정받아 가고 있다.
*반달리즘(Vandalism): 문화, 예술 공간 및 공공시설을 파괴하는 행위 및 그러한 경향을 일컫는다.



▲ 대형미트 봉지에 경계를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물질만능주의를 풍자한 뱅크시

말이다.
미국의 한 미술품 수집가는 뱅크시에 대해 피카소와 고흐 같은 거장들의 뒤를 이을 천재예술가라 평하기도 했다. 이렇듯 스트리트 아트는 더 이상 뒷 골목 한 칸의 낙서가 아닌 한 분야의 예술의 한 분야로서 인정받아 가고 있다.
*반달리즘(Vandalism): 문화, 예술 공간 및 공공시설을 파괴하는 행위 및 그러한 경향을 일컫는다.

윤지은 기자 yoonyoon@hansung.ac.kr

가을은 이색마라톤의 계절?



문화읽어주는 기자 윤지은

무더운 여름이 지난 지도 벌써 몇 달째다. 누군가 여름은 젊음의 계절이라고 하던데 무더운 여름이 지나 할까봐 기분이 드는 한편 무언가 아쉽다. 젊음의 열기 같은 게 사라진 느낌이다. 하지만 이번 가을은 무언가 달랐다. 이색 마라톤열풍이 여름의 빈자리를 채워주었던 듯 했다.
쑤미 런, 컬러 미 레드(Color Me Rad), EDM 5k Run에 대해 들어본 적 있는가. 혹은 생소하게 느껴지는가. 이들은 올 가을에 불었던 이색마라톤 열풍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마라톤들이다. 독특한 이름만큼이나 다들 호기심을 자극할만한 제각각의 특성으로 올 가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었다.
우선 컬러 미 레드: 미국과 대만을 거쳐 우리나라에 상륙한 마라톤 행사로 달리는 동안 다양한 색상의 가루폭탄을 맞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형형색색 빛깔의 가루는 옥수수 전분과 인체에 무해한 색소로 만들어져 안전하기까지 하고 있다.
다음 쑤미 런: 폐장된 놀이공원에서 쑤미를 피해 달린다는 설정으로 뉴스매체에 까지 소개될 정도로 이슈를 몰고 왔었다.
마지막으로 EDM 5k Run. Electronic Dance Music을 나타내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일렉트릭 댄스 음악과 마라톤이 어우러진 행사이다. 음악과 스포츠를 동시에 즐길 수 있어 평소 먹고 알도 먹을 수 있던

일석이조의 마라톤 행사였다. 이 외에도 각종 스포츠 브랜드에서 주관한 이색 마라톤 행사들도 열렸었다. 이색 장애물 경기인 스파르탄 레이스와 광화문에서 부터 여의도 까지 달리는 We Run 서울 2013 등이 가을을 풍성하게 해주었다.
'달리기'를 떠올려보자. 중고등학교 시절 이후 마지막으로 달려본 적이 언제인가. 일상생활 속에서 수업 시간에 늦지 않으려 혹은 약속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 달렸던 적은 무수히 많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을 지키기 위한 '달리기'가 아닌 진짜 '달리기'를 한 적은 언제인가. 다들 마음먹고 달렸던 적은 꽤 오래됐을 것이다. 이런 우리에게 이색마라톤 행사들은 마음껏 달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었던 듯 하다. 달리는 동안 친구, 가족들과 추억을 나누는 한편 일상 속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도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셈이다. 또한 일부 마라톤은 수익금의 일정 부분을 기부하기도 한다. 다음 주자 쑤미 런은 폐장된 놀이공원에서 쑤미를 피해 달린다는 설정으로 뉴스매체에 까지 소개될 정도로 이슈를 몰고 왔었다.
마지막으로 EDM 5k Run. Electronic Dance Music을 나타내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일렉트릭 댄스 음악과 마라톤이 어우러진 행사이다. 음악과 스포츠를 동시에 즐길 수 있어 평소 먹고 알도 먹을 수 있던

▲ 키덜트가 마크 제이콥스 매장에 남긴 \$686 그래피티

2014년 한성을 이끌어갈 후보들을 소개합니다

지난 11월 20일에 공개기구와 단과대 학생회 입후보 신청이 마감되었다. 다음날부터 학교 곳곳에는 각 후보들의 포스터가 눈에 띄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각 공개기구와 단과대 학생회에 어느 후보가 나왔는지, 어떤 공약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취재부〉

총학생회

[라디오]



기호 1번
박미성(행정 4) 정학생회장 후보
배성진(역사문화 2) 부학생회장 후보

'라디오'선거운동본부는 ▲긴급사연119 ▲아르바이트 센터 ▲라디오 서포터즈 ▲실용실습비 내역 성적표 분리 고지 ▲인디 락 페스티벌 개최 ▲Free print zone 설치 ▲야간잔류 신청 간소화 등 50개의 공약을 내걸었다. 박미성 정학생회장 후보는 "6,800여명의 본교 학우 중 총 1,000명의 학우들에게 추천 서명을 받았다. 또 선거유세기간 동안 1,000명의 학우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며 "학우들에게 앞으로의 학생회는 이전과 다를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주고, 50개의 약속을 지키며 학생회에 대한 불신을 100% 원상복구 시킬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행동]



기호 2번
이종혁(정통 3) 정학생회장 후보
유지혜(영어영문 2) 부학생회장 후보

'행동'선거운동본부는 ▲수강신청 장바구니 제도 ▲재수강 학점 제한 완화 ▲스마트 학생증 ▲온라인 사물함 신청 ▲셔틀버스 운영 확대 및 경로 개선 ▲Wi-fi 개선 ▲공학관 ATM개선 등 13개의 공약을 선보였다. 이종혁 정학생회장 후보는 "우리학교는 올 2학기부터 학생회비가 분리되고자 기존의 학생회비의 40% 예산으로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 때문에 당선을 위한 공약이 아닌 한성대 학우들을 위해 실현가능한 공약을 가지고 나왔다"고 전했다. 또한 "한성대 학우 전체를 위한 학생회로서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덧붙였다.

총대의원회

[MADE 人]



원정효(산공 3) 정의장 후보
김민지(패디 3) 부의장 후보

'MADE'선거운동본부는 ▲대의원 커뮤니티 개설 ▲대의원간 교류 활성화 ▲보다 투명한 감사제도 확립 ▲학칙 및 준칙 개정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원정효 정의장은 "민주적인 학생자치활동을 위하여 대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 발로 뛰며 모두가 함께 화합하는 총대의원회를 'MADE'가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학생복지위원회

[Vitamin]



기호 1번
정주용(지정 3) 정위원장 후보
서인영(패디 3) 부위원장 후보

'Vitamin'선거운동본부는 ▲비타민과 학우들의 공유 공간 ▲물품대여료 전환 및 인하, 사회환원 ▲아웃장 속 헌옷 기증 ▲상주시간 & 한가위 귀향버스 복원 ▲깨끗한 학생식당을 위해 노력 ▲택배 송신과 교통카드 충전가능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주용 정위원장은 "학우들의 평범한 학교생활에 비타민이 되는 학생복지위원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 울]



기호 2번
이영철(산공 3) 정위원장 후보
정두화(영어영문 2) 부위원장 후보

'한울'선거운동본부는 ▲대여사업의 확대 ▲각 과 학생회실, 동아리실 게시판에 학생복지위원회 복지사업 내용 자료 게시 ▲학생복지위원회 운영시간 확대 ▲매점 운영시간 확대 ▲공동구매사업 진행 등 10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이영철 정위원장은 "이상향으로서 꿈만 꾸는 것이 아닌 더 나은 복지를 위한 공약들이 실현가능할 수 있게 한성대 학우들의 울타리가 되려고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졸업준비위원회

[SOS]



김경민(역사문화 3) 정위원장 후보
박수빈(경영 2) 부위원장 후보

'S·O·S'선거운동본부는 ▲앨범 과별 소재자 주문 ▲앨범환불금에 대한 안내 ▲SNS 홍보 강화 ▲시각적인 홍보 강화 ▲문자서비스 ▲초청강연 실시 ▲취업설계 소재자 등의 공약을 선보였다. 김경민 정위원장은 "대의원과 학생복지위원회 사무국장을 역임하면서 학생회가 책임감이 필요한 자리라는 것을 느꼈다"며 "위원장이 되면 이러한 점을 잘 전해주고 기구가 해야 할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하는 기구로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문대

[Soul]



이민석(영어영문 3) 정학생회장 후보
권한결(영어영문 3) 부학생회장 후보

'Soul'선거운동본부는 ▲인문대 체전 개최 ▲복지 사업 ▲복합기 사업 ▲블로그 운영 ▲대외활동지원 ▲간식배부 ▲연합소모임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민석 정학생회장 후보는 "본교 인문대학 학우들 간의 교류를 확대하여 기억에 남는 인문대 학생회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예술대



김백현(의패 3) 정학생회장 후보
박다원(인테 3) 부학생회장 후보

'C&B'선거운동본부는 ▲예술대 프린트 사업 ▲예술대 중고 서점 운영 ▲예술대 세미나 및 교류 사업 ▲예술대 행사 관련 후원사 유치 등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백현 정학생회장 후보는 "예술대라는 좋은 컨텐츠를 잘 살려보겠다. 다양한 실무 경험을 통해 예술대 학우들과 만들고 나누어 기존과는 다른 예술대를 만들겠다"고 선거에 임하는 포부를 밝혔다.

공과대

[O₂]



기호 1번
양남철(정시 3) 정학생회장 후보
이정은(정통 2) 부학생회장 후보

'O₂'선거운동본부는 ▲공대엔티추진 ▲야식사업 개선 ▲C언어 대회 및 각종 언어 대회 추진 및 홍보 ▲공학용 계산기 및 핸드폰 충전기 대여 ▲공학관 매점 시간연장 ▲공학관 와이파이 추가설치 ▲페이스북 개설 및 이벤트 실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양남철 정학생회장 후보는 "O₂선거본부의 취지는 열린 마음으로 공대학우들에게 다가가는 것이다. 제16대 공과대학생회를 이끌게 된다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공약에 대해 확실하게 실천하겠다"며 "꾸준한 노력으로 어느 누구보다 희생하며 봉사하겠다는 것을 약속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LUV]



기호 2번
권구홍(산공 2) 정학생회장 후보
장민주(산공 2) 부학생회장 후보

'LUV'선거운동본부는 ▲소통하는 공대 ▲공학용 계산기 대여 사업 ▲셀프인쇄소 ▲공학관 환경 개선 ▲SNS를 통해 하나 되는 공대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 권구홍 정학생회장 후보는 "LUV는 Listen Ur Voice의 약자로 우리들의 목표이자 슬로건이다. 본교 공과대학 학우들의 소리를 항상 듣는 자세로 임하겠다. 이를 진정 자신의 일처럼 적극적으로 공감해주고 실천하는 'LUV'가 될 것"이라며 "작은 것부터 듣고, 느끼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자세로 좋은 공과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